

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

금융투자과장	김국진	2133-8547
투자유치팀장	김윤정	2133-4760
글로벌기업팀장	정재선	6361-4130
누리집 : <a href="http://www.investseoul.org">http://www.investseoul.org</a>		

인베스트서울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## 인베스트서울, 외국인직접투자(FDI) 올인원 패키지로 외국기업 서울진출 가교 된다

- 서울진출 준비단계부터 법인설립,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, '23년 총 46개 기업 지원
- IT·콘텐츠, 미국·홍콩 등 다양한 업종·국가로 서울에 대한 다각화된 관심 보여줘
- 시, '24년에 바이오, 게임, 콘텐츠, 금융 등 서울시 전략산업 중심 지원 강화

-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서울(Invest Seoul)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'FDI 올인원(All in One) 패키지'를 통해 미국, 싱가포르, 일본 등 글로벌 기업 46개 사가 서울에 둥지를 틀거나, 사업을 확장했다고 밝혔다. 업종별로는 IT, 콘텐츠, 바이오 등 서울시가 집중하는 전략산업에 집중되어 있다.
  - 업종별로는 IT(13개), 콘텐츠(5개), 에너지(4개), 바이오(3개), 금융(3개) 등이며, 국가별로는 미국(14개), 홍콩(5개), 싱가포르·중국·일본(각각 4개) 등이다. 특히 '22년 대비 콘텐츠, 바이오, 금융 분야 기업이 증가하여 서울시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.
- 'FDI 올인원 패키지'는 서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컨설팅 비용, 법인 등기, 부동산 임차 등 외국인 기업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한 모든 분

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.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코로나 이후 ‘서울’ 투자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기업들이 서울진출을 위해 거치는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.

- FDI 올인원 패키지는 서울진출을 장려하는 마켓엔트리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지원, 노무·회계·법률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지원, 사업안착을 위한 정착지원을 비롯해 후속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애프터 케어까지 외투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.

※ FDI(Foreign Direct Investment)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뜻한다.

< FDI 올인원패키지 주요 사업내용 >

마켓 엔트리	사전 지원	서울진출을 위한 사전 마켓리서치 컨설팅 비용 지원 (시장현황, 경쟁우위, 파트너십, 세금, 규제 등) ※ 서울 법인설립 필수	실비지원 (최대 5백만원)
FDI 올인원 패키지	투자 지원	법인설립/증자 등기 비용 ※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준용	투자규모에 따라 실비 지원
	경영 지원	노무/구인/법률/세무·회계/지재권/비즈니스 분야 컨설팅 비용 지원	투자금의 1% (최대 1천만원)
	정착 지원	· 글로벌 부동산업체 정보제공 및 사무실 임차비용(월세) 지원 · 리로케이션 서비스비용 지원	FDI 10억원이상 유치 기업 대상 최대5백만원
애프터 케어	사후 지원	기 FDI기업 中 추가 투자시 지원금	투자금의 1% (최대 5백만원)

- 특히, 코트라(KOTRA), 주요 외국환은행,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국내 FDI 관계기관과 변호사, 회계사, 노무사 등의 전문가집단 파트너십을 통해 ‘사전 시장조사 - 현지 법인 설립 - 투자유치-후속 관리’의 단계별 지원도 촘촘하게 운영 중이다.

- '23년에는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니즈파악을 통해 서울진출을 위한

사전 마켓리서치, 비즈니스모델 체계 확립을 위한 비즈니스컨설팅 지원, 기(既)외투기업의 후속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애프터케어를 추가하여 운영했다.

□ 시는 올해 인베스트서울을 중심으로 홍콩, 싱가포르 등 현장에서 서울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유치를 진행했다면, 2024년에는 게임, 콘텐츠 산업 등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올해 7월 인베스트서울이 개최한 홍콩 로드쇼를 통해 서울에 진출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홍콩기업 M사는 “해외 현지에서 서울 마켓엔트리를 위한 A부터 Z까지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.”며 “앞으로도 글로벌 유망기업들이 서울에 대한 비전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고 전했다.

□ 박경환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“인베스트서울이 코로나 이후 ‘서울’ 진출을 고려하거나, 기존 사업을 확장하길 바라는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창구가 된 만큼, 당장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도 서울의 다양한 인프라, 지원 정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‘FDI 올인 원 패키지’를 운영할 것”이라고 말하고, ’24년에는 콘텐츠, 게임, 바이오 등 서울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

붙임 : FDI 올인원 패키지 개요

○ 추진배경 : 서울진출 준비단계부터 투자신고 및 사업운영을 비롯한 후속지원  
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FDI(외국인직접투자) 활성화

○ 지원대상

- 마켓엔트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글로벌 유망기업 · 금융기관
- '23년 FDI로 법인설립 또는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
- '23년 추가 해외투자 유치를 완료한 기외국인투자기업

○ 지원내용

마켓 엔트리	사전 지원	서울진출을 위한 사전 마켓리서치 컨설팅 비용 지원 (시장현황, 경쟁우위, 파트너십, 세금, 규제 등) ※ 서울 법인설립 필수	실비지원 (최대 5백만원)
FDI 올인원 패키지	투자 지원	법인설립/증자 등기 비용 ※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 준용	투자규모에 따라 실비 지원
	경영 지원	노무/구인/법률/세무·회계/지재권/비즈니스 분야 컨설팅 비용 지원	투자금의 1% (최대 1천만원)
	정착 지원	· 글로벌 부동산업체 정보제공 및 사무실 임차비용(월세) 지원 · 리로케이션 서비스비용 지원	FDI 10억원이상 유치 기업 대상 최대5백만원
애프터 케어	사후 지원	기 FDI기업 中 추가 투자시 지원금	투자금의 1% (최대 5백만원)

○ 지원현황

- 업종별

구분	계	IT	유통	콘텐츠	에너지	바이오	금융	제조	서비스	기타
23년 개사	46	13	13	5	4	3	3	2	1	2
22년 개사	67	14	18	-	-	-	-	2	32	1

- 국가별

구분	계	미국	홍콩	일본	중국	싱가포르	네덜란드	기타
23년 개사	46	14	5	4	4	4	-	15
22년 개사	67	31	-	2	5	4	12	13